



노동조합, 정보통신부 방문 예정

연구사업 수주 및 환경변화에 따른 전 직원 설문조사 실시키로

우리 노동조합은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는 연구사업 수주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보통신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BcN연구단 및 일부 직할부서에서 연구사업 미확보로 인하여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등 연구분위기가 극도로 나빠져 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연구사업 미확보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ETRI**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대외 연구

사업 수주의 이해도와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자 빠른 시일내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직원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과기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우리 **ETRI**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바탕으로 보다 훌륭한 연구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과기노조 및 상급단체와 연계하여 **PBS** 제도폐지 및 연구지원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조합 간부, 건강검진 지정병원 의사들과 간담회 개최 직원들에 대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당부

우리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직원 건강검진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ETRI** 직원 건강검진 시 최선의 서비스는 물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지난 3월 8일(목) 연구원 봉사식당에서 개최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대한 문의와 함께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중심의 대형병원과 대전권 병원에 대한 건강 진단 시 차이점, 각 병원 의료장비 및 의료진 구성 등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세밀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이 이어졌다.

이러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질의에 각 병원 의료진들은 건강 검진 시 발견되는 중대한 질병 등은 서울중심의 대형병원에 비해 지방병원에서 조기 발견되는 확률이 더욱 높다고 밝히고, 지방병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항목 수 및 검진 방법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여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며, 특히 **ETRI**에서는 1차 건강 검진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2차 검진을 통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다른 공기업과 차별화 되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한주동 수석부위원장은 금번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ETRI** 직원들이 최상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병원 의료진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간담회에는 선병원 검진센터 김응수 원장, 박한주 가정의학과장, 성모병원 검진센터 변경원 소장, 길수영 간호팀장, 을지병원 오장균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임원진과 문애경 운영위원이 참석하였다. 연구원측에서는 건강관리실 이경희 간호사 및 복지팀장이 참석하였다.

금년도 직원 건강검진은 4월 셋째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1차 검진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의료진과 상의하여 2차 정밀 검사를 20만원 한도(연구원 부담) 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세밀한 부분까지 검진을 받아 건강한 **ETRI**인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 장

대내외적인 연구 환경 계속 악화 예상돼

창립 20주년, 새롭게 출발하는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야

올해는 우리 노동조합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지난 '87년 과거치 준칙철폐, 연구원 처우개선의 깃발을 내걸고 출연기관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활동을 돌이켜 보면 많은 어려움과 역경도 있었지만 보람찬 기억도 있다.

'87년 당시 ETRI 선배들은 정부와 경영진을 상대로 연구원의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업과 단식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92년에는 연구기관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연구원내 민주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가깝게는 지난 2002년 독선적인 파행경영으로 연구원과 직원들을 어렵게 했던 오길록 전 임원장을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힘으로 연구원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퇴진시켰고, 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이 노동조합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연구현장에 계신 직원들이 더 절실하게 체감하겠지만 현재 연구원을 둘러싼 대외적인 연구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비단 BcN연구단 및 일부 직할부서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연구사업 수주 환경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부 및 국회 등

외부 관련기관에서 ETRI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또한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물론 정부의 획일적인 과학기술정책으로 말미암아 상용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어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엄밀히 살펴보면 과거 몇 년간 특별한 연구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우리 내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노동조합은 최문기 원장 부임 이후 노사협력회의 등 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연구사업 미확보 등으로 인한 연구분위기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연구원의 대응전략과 진행 경과를 요청하는 한편, 직원들이 안심하고 연구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과 필요에 따라 노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것을 연구원 측에 요구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이러한 연구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굳은 단결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조직이 필요하며, 현재 ETRI 직원들은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대표조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노동조합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으나, 직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현재의 조직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련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조합은 연구원의 새로운 리더쉽과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통한 신바람 나는 연구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이를 노동조합 조직력 확충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하고자 한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노동조합 역시 잘 알고 있다. 아쉽고 부족하다라도 지금은 노동조합 가입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신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2일(월)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등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조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조합이 직원 과반수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ETRI의 직원 대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한주동 드림.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07년 사업계획 등 확정

2006년 회계 결산 및 2007년 예산(안) 등 원안대로 통과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가 지난 3월 12일(월) 오후 4시 재적 대의원 9명 중 출장자 2명을 제외한 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렸다.

첫 번째 안건으로 노동조합 2006년 회계결산에 대한 설명과 이희태 회계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들어갔으며, 참석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산(안)이 통과되었다. 두 번째로 2007년 노동조합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건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배가운동 계획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세 번째, 노동조합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2007년 노동조합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현재 결연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정립사회복지관 5가족과 구즉동 독거노인 15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은 계속 진행하되, 나머지 지원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안)을 제출한 후 대의원 동의를 통해 집행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밖에 연구원 주요 현안문제인 ▶ 정보통신진흥기금 고갈 및 사업수주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모색 ▶ 노사협력회의를 통한 연구원 주요현안사항 협의요구 ▶ 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과제 수행 ▶ 2007년 임금인상 요구에 따른 주변정세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식의 자유 토론이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

특히 기금 고갈에 따른 연구환경 악화 및 불안정한 과제수주에 따른 고용 불안 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연구원 내부 해결 모색 방안으로 「연구원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연구성과, 경력 등) ⇨ 직무분석 ⇨ 교육 ⇨ 연구부서 재배치」를 연구원 측에 요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정통부

를 방문하여 정보통신진흥 기금 고갈에 따른 대안과 입장을 보다 명확히 요구하고, ETRI 경영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폐회선언에서 한주동 수석부위원장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을 노동조합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자’고 역설하며 대의원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2007년 사업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의 주요사업계획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

ETRI 노동조합 2007년 주요 사업계획 요약

1. 조합원 배가운동 지속적 전개

□ 조직국 신설

⇨ 조직국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배가운동 전략수립

2. 과학기술정책요구 사업화 방안 수립

□ 정책국 신설

⇨ 조합원 및 비보직 책임금 중심의 TFT 구성

⇨ 과학기술정책 연구과제 수행 (과기노조와 공동 또는 단독)

3. ETRI 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 홍보국 신설

⇨ ETRI 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모범적 실시

4. 사회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조합운영 수립

□ 비정규직 문제 및 연구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노사협력회의 정례화

⇨ 상급단체와 연계한 공공성 강화 및 경영혁신 사항 협의 등 노동조합 체계적인 일상활동 전개

5. 대외 연대활동 강화

□ 대외 연대활동 강화 추진

⇨ 공공연맹 산별전환과 연계한 타 출연기관 노동조합과의 연대강화

⇨ 불우이웃돕기 등 보다 다양한 지역연대 사업 지속추진

과학기술노조 - 연구전문노조 통합 확정

조합원 투표결과 과기노조 73%, 연전노조 91% 찬성

인문사회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연구전문노조와 조직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4,921명의 조합원 중 3,656명이 참가하여 이중 73.3%의 찬성으로 조직통합이 가결되었다고 지난 16일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연구전문노조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조합원 1,559명중 91.0%의 찬성으로 이미 조직통합을 확정된 상태로 양조직의 통합은 3월 27일 창립대의원 대회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94년 4월,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으며 산별노조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과기노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통합노조의 명칭과 관련하여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으로 하자는 안과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으로 하자는 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3월 27일 창립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통합노조는 조합원 조직대상을 정부출연·투자기관, 공익·공공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공법인, 정부위탁기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못한 다양한 공공기관노동조합 및 개별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94년 과기노조가 결성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2002년 당시 과기노조 집행부가 정치기금미납을 이유로 KAIST노동조합과 함께 제명함으로써 독자적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아직까지 기업별노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구성예정

조합원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 진행키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조합은 홍보국에 ‘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계획하여 진행키로 하였다.

기념사업위원회는 노동조합 홍보국장을 중심으로 관심있는 일반 조합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2007년 노동조합 사업계획에서 확정된 사업 기초를 반영하여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조합원 복지 사업 등 포괄적인 조직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조합원 선택적 복지 제도’ 및 ‘조합원 가족 캠프’에 대한 조합원 평가를 다음 주 실시하고, 조합원 평가를 바탕으로 2007년 사업 계속 여부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에서는 관심 있는 조합원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조합 조합원 배가운동 슬로건 공모 실시

노동조합은 2007년 주요 사업으로 연구원 내 조합원 과반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배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조합원 배가운동에 앞서 연구현장에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합원 배가운동 슬로건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합원 배가운동 슬로건 공모 참가자 중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보내준 조합원 6명을 뽑아 시상할 예정이다.

- 대상 : 조합원
- 내용 : 조합원 배가운동 슬로건 공모
- 공모기간 : 2007. 3. 22(목) 18:00까지
- 참여방법 : 메일로 (cms 원용숙) 회신
- 시상내역 : 1등 20만원권 상품권(1명), 2등 10만원권(2명), 3등 5만원권(3명)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정부패방지센터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문의 : 김정기 사무국장, ☎ 6369)